

# 대학생의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n University Students

박소연, 김진경, 이택영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So-Yeon Park(soyon@hanseo.ac.kr), Jin-Kyung Kim(k6j4k@hanseo.ac.kr),  
Taek-Young Lee(otlty@hanseo.ac.kr)

### 요약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원봉사는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울 경기 지방에 위치한 치매관련 노인 요양 시설에서 20일(160시간)간 실시되었다. 참가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참가하기 전과 후에 자존감, 자기효능감, 자원봉사와 진로의식 및 행동관련 설문을 자가기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대상자들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도 각각 29.43±2.51점, 30.45±3.41점에서 31.66±2.63과 33.26±3.93점으로 향상되었다(p<.00). 또 대상자들은 자원봉사 후에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공 관련 자원봉사가 대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소속감과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대학생 | 자기효능감 | 자원봉사 | 자존감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major-related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n fifty thre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volunteered for 20 days in the geriatric service center for dementia from July 27, 2009 to August 21, 2009.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in self-efficiency, career awareness before and after the volunteering. Student showed satisfaction to volunteer program in general, and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mproved from 29.43±2.51 point and 30.45±3.41 point to 31.66±2.63 point and 33.26±3.93 point, respectively. In addition, subjects expressed comfort toward occupational therapy and were able to recognize how to prepare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ist after graduation. These results indicates that occupational therapy-related volunteering was effective in understanding occupational therapy and improving career awareness.

■ keyword : | Students | Self-esteem | Volunteer | Self-esteem |

## 1. 서론

사람들은 일정한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직업은 일에 대한 애정과 긍지, 만족과 보람을 통한 자아실현적 의미와 함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1]. 그러므로 자기 진로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직업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 교육기간의 장기화, 고시열풍, 이공계 기피 현상, 청년층의 근로의욕 약화와 사회 불만 증대 등의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청년실업 증가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진로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졸업을 늦춰서라도 취업을 준비하려는 기현상까지 보이고 있다[3]. 이는 어려서부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탐색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나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장래 희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학 입시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거나, 부모님의 기대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입학 후에도 전공에 대해 적성이 맞지 않아 방황하거나 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4]. 작업치료학과 의 학생들도 전공에 대한 이해 및 직업을 목표로 학과에 들어오기 보다는 성적과 부모님의 권유로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대학 재학 시기는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바로 전 단계이므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혀주고 시대나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학생들의 낮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진로 선택 또는 진로 준비 시 혼란과 갈등, 자신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존감(self-esteem)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긍정적 평가이며[5], 이러한 자아의 긍정적인 가치 인식은 다른 사람들의 수용과 인정으로

부터 형성된다[6]. 자존감은 자신이 인식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 인간의 생애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의 바람직한 적응 및 건전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7].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진로 준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확신성 정도로 자신의 선택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8]. 자기효능감은 동기수준 뿐만 아니라 진로영역에 대한 결정 수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반대로 대학생 시기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부정적 자상이 형성된다면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낮은 자존감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제시하고 있다[2]. 자원봉사는 사회봉사, 인간봉사 그리고 자원복지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자원봉사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하고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인적인 의미에서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의 시간, 기술, 지식 및 능력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에 이용하는 것으로 봉사자 자신에게 생활의 의미를 찾게 해주며 자긍심 내지 정신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사회적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공공복지를 위하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8]. 교육적 의미의 자원봉사는 타인과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발전과 성숙에 기반이 된다는 점과 사회에 대한 소속감, 확고한 주인의식을 개념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은 학과 전공에서 학습한 결과를 사회에 직접 환원하는 활동으로 이어져 대학생들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자원봉사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을 때 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질 수 있다[7][9].

이전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봉사활동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표면적으로 수행하는데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실시했을 때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과에서 전공과 연계된 기관을 제공하여 전공 관련 자원봉사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고 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2009년 현재 충남 지역에 위치한 H 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이 없고, 참여를 희망한 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원봉사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치매지원센터에서 2009년 7월 14일부터 8월 21일 까지 20일간(160시간) 실시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자원봉사를 실시하기 전과 후에 대상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였으며,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된 설문지 중 총 5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비구조적 면접(un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2. 연구 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자존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2.1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

개인의 자아 존중감 즉,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9]. 긍정적 자아존중

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척도로서 긍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이고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채점할 때는 역으로 변환하여 처리한다.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90이며 반분신뢰도 검사 결과 반분계수 .89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 자기효능감 척도(The Generalied Self-Efficacy Scale:GSE)

자기효능감에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Tipton과 Worthington(1984)이 개발하고 양숙미[10]가 수정한 일반화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점 척도로 3가지 하위영역(과업효능감, 대처효능감, 정서통제효능감) 아래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 수록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89이었다.

#### 2.3 자원봉사 관련 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정진희[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설문 문항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 보완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① 자원봉사에 대한 일반적 사항
- ② 자원봉사에 대한 진로인식 및 행동에 관한 사항
- ③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

### 3.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자원봉사와 관련 설문지는 빈도분석과  $\chi^2$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전과 후의 자존감,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짝비교 t 검정(paired t 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  $\alpha$ 는 .05로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자원봉사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자원봉사프로그램에 2학년 17명(32.1%), 3학년 36명(67.9%) 총 53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남학생이 11명(20.8%), 여학생이 42명(79.2%)였다. 대상자들이 작업 치료학과 결정시기는 고등학교 시절이 35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전공의 독특성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0명(37.7%)이었다. 현재 학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52.8%가 만족한다고 하였다[표 1].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53)

일반적 사항		명(빈도)	$\chi^2$
학년	2학년	17(32.1)	6.81*
	3학년	36(67.9)	
성별	남	11(20.8)	18.13*
	여	42(79.2)	
작업치료학과 결정시기	고등학교	35(66.0)	27.32*
	대학교	13(24.5)	
	기타	5(9.4)	
학과선택 동기(자의)	취직용이	11(20.8)	49.88*
	경제적 혜택	6(11.3)	
	봉사직을 갖기 위해	3(5.7)	
	적성에 맞아서	2(3.8)	
	학구적 직업이므로	1(1.9)	
	해외취업을 위해	1(1.9)	
	전공의 독특성 때문	20(37.7)	
직업의 안정성 때문	9(17.0)		
학과 선택의 만족도	매우 만족	5(9.4)	35.38*
	만족	28(52.8)	
	보통	19(35.8)	
	불만족	1(1.9)	
	매우 불만족	0(0.0)	

\*p < .05

#### 2. 자원봉사 전, 후 자존감,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

자원봉사 전과 후의 학생들의 자존감,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았다[표 2]. 그 결과 자존감은 봉사 전 29.43±2.51점에서 31.66±2.63로 향상되었고(p<.00), 자기효능감도 봉사 전 30.45±3.41점에서 봉사 후

33.26±3.93점으로 향상되었다(p<.00).

표 2. 자원봉사 전, 후 자존감, 자기효능감 점수 변화 (N=53)

	자원봉사 전	자원봉사 후	t	p
자존감(점)	29.43±2.51	31.66±2.63	-4.90	.00*
자기효능감(점)	30.45±3.41	33.26±3.93	-4.43	.00*

#### 3. 자원봉사 관련 사항

치매관련 전문기관 자원봉사 후 자원봉사에 관련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표 3], 업무량의 적절성에서는 10명(18.9%)이 매우 적절했다고 응답하였고, 적절하였다와 보통이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28명(52.8%), 11명(22.6%)이었다. 시간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대체로 적절하였다가 27명(50.9%)이었고, 보통과 매우 적절하였다가 각각 11명(20.8%)이었다. 거리의 적절성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대체로 적절하지 않았다(22.6%)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24.5%)가 47.1%를 차지하였다. 본인의 적성과 업무의 관련성에서는 대체로 적절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41.5%였고, 매우 적절하였다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12명(22.6%)이었다. 담당자와의 관계는 47.2%가 대체로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고, 32.1%는 매우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자의 친절성에서는 대체로 적절하지 않았다(15.1%)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자의 배려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4%로 가장 많았다. 담당자는 나를 필요한 존재로 대우했는가에 대체로 적절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35.8%로 가장 많았다.

표 3. 자원봉사 관련 설문 단위 : 명(%)

항 목	매우 적절하지 않음	대체로 적절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적절함	매우 적절함	$\chi^2$
1. 업무량의 적절성	0 (0.0)	3 (5.7)	12 (22.6)	28 (52.8)	10 (18.9)	25.26*
2. 시간의 적절성	1 (1.9)	3 (5.7)	11 (20.8)	27 (50.9)	11 (20.8)	39.55*
3. 거리의 적절성	13 (24.5)	12 (22.6)	6 (11.3)	12 (22.6)	10 (18.9)	2.94

4. 자원봉사 업무와 본인의 적성과의 관련성	1 (1.9)	6 (11.3)	12 (22.6)	22 (41.5)	12 (22.6)	23.32*
5. 담당자와의 관계	0 (0.0)	3 (5.7)	8 (15.1)	25 (47.2)	17 (32.1)	21.49*
6. 담당자의 친절성	0 (0.0)	8 (15.1)	13 (24.5)	18 (34.0)	14 (26.4)	3.83
7. 담당자의 배려	0 (0.0)	9 (17.0)	18 (34.0)	15 (28.3)	11 (20.8)	3.68*
8. 담당자는 나를 필요한 존재로 대우함	0 (0.0)	7 (13.2)	13 (24.5)	19 (35.8)	14 (26.4)	5.49

\*p < .05

#### 4. 자원봉사를 마친 후 진로의식 및 행동 관련 질문지

자원봉사를 마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의식 및 행동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4]. 봉사 이후 내 전공에 편안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가 45.3%를 차지하였고, 내 전공이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 항목에서는 39.6%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봉사 이후 내 적성과 능력을 잘 파악하게 되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43.3%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앞으로 내가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가에 47.2%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봉사이후 친구들과 나의 적성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지에 41.5%가 ‘대체로 그렇다’라고 하였고, 32.1%는 부모님과 적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봉사 이후 73.6%가 전공 책을 읽어보게 되었고, 전공에 대한 흥미가 바뀔지 염려스럽다에 37.7%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봉사 이후 대체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34%를 나타냈다. 진로선택에 만족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43.4%가 ‘약간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35.8%는 작업치료를 대체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였다. 봉사이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나의 평가가 다소 차이가 있었는지에 45.3%가 ‘약간 그렇다’라고 하였다. 또한 봉사 이후 41.45% 이상이 자신에 관해 확신이 생겼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자원봉사 후의 학생의 진로의식 및 행동 관련 질문지  
단위: 명(%)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chi^2$
1. 내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다	0 (0.0)	6 (11.3)	17 (32.1)	24 (45.3)	6 (11.3)	17.72*
2. 내 전공이 내가 만족할 만한 진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2 (3.8)	4 (7.5)	18 (34.0)	21 (39.6)	8 (15.1)	27.09*
3. 나의 적성과 능력을 잘 파악하게 되었다.	1 (1.0)	4 (7.5)	18 (34.0)	23 (43.4)	7 (13.2)	33.70*
4. 앞으로 내가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0 (0.0)	4 (7.5)	14 (26.4)	25 (47.2)	10 (19.9)	17.71*
5. 친구들과 나의 적성 및 취업 등에 이야기 나눈 적이 있다.	0 (0.0)	3 (5.7)	10 (18.9)	22 (41.5)	18 (34.0)	16.21*
6. 부모님과 나의 적성 및 취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다.	1 (1.9)	9 (17.0)	10 (18.9)	17 (32.1)	16 (30.2)	15.59*
7. 작업치료학과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 있다.	2 (3.8)	12 (22.6)	19 (35.8)	15 (28.3)	5 (9.4)	18.60*
8. 나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본 적 있다.	20 (47.7)	16 (30.2)	5 (9.4)	7 (13.2)	5 (9.4)	18.23*
9. 나의 흥미가 시간에 따라 바뀔지 몰라 염려가 된다.	9 (17.0)	20 (37.7)	16 (30.2)	6 (11.3)	2(3.8)	20.30*
10. 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0 (0.0)	10 (18.9)	18 (34.0)	18 (34.0)	7 (13.2)	7.15
11. 나의 진로선택에 만족을 느낀다.	1 (1.9)	3 (5.7)	23 (43.4)	15 (28.3)	11 (20.8)	30.49*
12. 작업치료학에 매력을 느낀다.	0 (0.0)	2 (3.8)	16 (30.2)	19 (35.8)	16 (30.2)	13.19*
13. 나의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나의 평가는 다소 차이가 있다.	0 (0.0)	4 (7.5)	24 (45.3)	18 (33.2)	7 (13.2)	19.83*
14.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 있어 나 자신에 관하여 확신이 생겼다	0 (0.0)	5 (9.4)	22 (41.5)	19 (35.8)	7 (13.2)	16.39*

\*p < .05

#### IV. 고찰

대학은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대학생 시기에 직업에 대한 진로인식 및 진로준비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는 고용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졸업 후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12].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취업이 잘되는 학과위주로 선택하게 된다[4]. 입학 후에도 학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은 직업선택과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직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위한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높이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3]. 대학생들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가 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이 자신의 전공과목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자존감은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2][14].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한 자원봉사 활동이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진로인식 및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53명으로 3학년이 2학년보다는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의 66.6%는 고등학교시절에 전공에 대해서 선택하게 되었고, 전공선택의 이유로는 전공의 독특성 때문이라고 37.7%가 응답하였다. 현재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자의 52.8%가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자원봉사 활동의 동기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과 목에 있어서 작업치료에 관한 이론적 내용과 더불어 실제 상

황에 적용해보려는 목적이 있었다.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학년은 졸업하기 전자원봉사 취득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또한 선배들의 권유가 있어 지원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3학년의 경우는 그동안 막연하게 배웠던 환자의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고 취업과 연계해서 관련성을 찾아보고 싶었다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동기는 자율적이었지만 몇몇 학생의 경우는 타의적인 강요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상자들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자원봉사 참여 후에 자존감은  $29.43 \pm 2.51$ 점에서  $31.66 \pm 2.63$ 점으로 2.23점이 향상되었고( $p < .05$ ), 자기효능감은  $30.45 \pm 3.41$ 점에서  $33.26 \pm 3.93$ 점으로 2.81점이 향상을 나타냈다( $p < .05$ ). 이는 자원봉사가 학생들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변화에 효과적이라는 박경주[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가 학생들의 이타주의 정신 함양의 기회와 사회성 발달의 계기를 마련해 주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포부를 쌓게 하며 지도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는 김성자[12]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의 참여가 개인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치료사의 치료 보조 및 사용된 치료도구의 정리 정돈을 통해 치료사의 업무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새삼 나의 존재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동안의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 대학생의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자신의 전공과의 무관성과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13][15]. 이에 본 연구는 전공과 관련된 자원봉사와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효과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그와 관련된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업무량과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3(5.7%)명을 제외하고는 적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한 3명은 자원봉사 기관이 집과 멀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집에서 출발해야 했

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때문이었다고 대답하였다. 자원봉사와 자신의 적성과의 관련성에서는 7명(13.2%)을 제외하고 자신의 적성에 적절하였다고 하였다. 7명은 주로 2학년이었는데 전공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전공과 자원봉사 활동을 일치시키기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담당자와의 관계 및 배려, 대우에서는 44명(83%)이 적절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자원봉사가 참여율과 효율성면에서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서 학생들은 크게 치료 참관, 치료 보조 및 기타 업무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치료사의 치료 장면을 직접 유심히 살펴봄으로써 환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환자 접근 방법 등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2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운 기초 의학(해부학, 생리학 등)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하였다. 치료 보조 활동은 치료에 필요한 도구 정리를 통해 치료실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기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학생들은 대답하였다.

자원봉사 후의 자신의 진로 의식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에서는 47명(89.7%)이 내 전공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49명(92.5%)은 작업치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후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참가자의 43명(81.1%)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48명(90.6%)이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 의식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 장범식[16]의 연구결과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 의식 및 준비행동이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향상된 자존감과 효능감이 진로 의식과 행동 변화를 유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Bandura[17]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수행하고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이 행동의 변화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Hackett와 Bets[18]도 자기효능감이 직업선택이나 진로의식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선택에 있어 더 많은 노력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의식을 갖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기 이전에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호근[19]은 대학생의 자원봉사의 참여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 배치, 자원봉사의 교육과 훈련, 전공과 연계한 자원봉사의 개발과 운영, 자원봉사 동아리의 육성과 지원, 인센티브 제도의 적극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홍인경[20]은 자원봉사 내용면에서는 자신과 관련이 있는 특히,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관찰하여 보조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높여야 된다고 하였다.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학점을 부과하거나 자원봉사와 연계한 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1].

본 연구는 53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실시한 결과를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심층 면접법을 통해 학생들이 자원봉사 진후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또 하나의 제한점은 성별의 분포가 고르지 못해 성별에 따른 자존감과 자기효능감과 진로 의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문용식[22]은 성과 자원봉사활동 유무, 자아존중감에 따른 욕구수준의 차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봤었는데 성별에 따라 욕구수준과 자아존중감, 자원봉사 참여 유무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 수를 늘려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 후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의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나 자원봉사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적 연구들과는 달리 직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전공 관련 자원봉사를 통해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전공 관련 자원봉사가 전공에 대한 이해도 및 확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나아가 취업을 향상에도 자원봉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의 효과를 고려하여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기화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전공 관련 자원봉사는 자신이 학습한 전공 지식을 임상에 적용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거나 갈등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대학생의 자원봉사에 관한 논문들은 대부분이 봉사활동의 만족도, 참여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제들이 대부분이었고 실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비교해 논문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관련 자원봉사가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인식 및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기본지식을 입상에 서 눈으로 직접 관찰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치료사와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 기술 뿐만 아니라 전공 선택에 대한 개인적 만족감도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53명이므로, 작업치료라는 전공에 국한되어 적용되었다는 점이 제한점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면접을 실시한 것에 대한 질적 보완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원봉사는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의미있는 활동이므로 앞으로의 대학에서는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견해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자기 전공과 직업에 대한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김홍규, *근로자의 갈등해소와 근로의욕 성취를 위한 관리자의 영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2.
- [2] 삼성경제연구소, *취업전쟁! 이제는 일하고 싶다: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6.
- [3] 통계청, *청년층 경제활동 인구 추이*, 2007.
- [4]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 *진로결정과 취업준비 현황*, 2007. <http://www.inciut.com>
- [5] 장휘숙, *가족심리학*, 서울: 박경사, 2001.
- [6] 조복희 외, *인간발달*, 서울: 교문사, 2004.
- [7] 송인자, *초, 중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8] 이은경,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9]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 *심리척도 핸드북 I*, 서울: 학지사, 1998.
- [10] 양숙미, *정신지체 성인자녀의 부모를 위한 역량 강화 집단 프로그램개발과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11] 정진희,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2] 김성자,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13] 권지성, *자원봉사 참여형태에 따른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14] 성제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정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5] 박경주,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16] 장범식, *체육계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 의식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17] A. Band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1977.

- [18] G. Hackett and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understanding career choice behavior," J Soc Clin Psychol, Vol.4, pp.279-289. 1986.
- [19] 오효근, "자원봉사의 자발성이 자원봉사활동 만족이 미치는 영향연구", 학생생활연구, 제9권, pp.47-75, 2005.
- [20] 홍인경,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1] 이승렬, *대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2] 문용식, "스포츠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이 욕구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2권, 제4호, pp.203-211, 2001.

**저 자 소 개**

**박 소 연(So-Yeon Park)** 정회원



- 1993년 2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보건학사)
  - 1997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보건학석사)
  - 200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작업치료, 근골격계작업치료, 인간공학, 직업재활

**김 진 경(Jin-Kyung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보건학사)
  - 2002년 8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이학석사)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작업치료, 작업치료평가, 일상생활

**이 택 영(Taek-Young Lee)** 정회원



- 1986년 2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보건학사)
  - 1999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건강관리학과(체육학석사)
  - 2007년 2월 :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이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노인문화, 노인작업치료